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김 완 석* 유 연 재 박 은 아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여성주의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McKinley와 Hyde(1996)의 객체화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척도를 토대로 한국 대학생에게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를 개발하고자 2개의 연구를 했다(N=431). 한국판 척도의 요인구조는 미국판과 마찬가지로 3개의 하위요인-감시성, 수치심, 통제신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통제신념을 제외한 두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성과 수치심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고, 이 척도들은 신체존중감이나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또한 신체관련 행동의도에 대한 예언력도 있었다. 하지만 통제신념 하위척도는 신뢰도가 매우 낮고, 감시성과 수치심과의 상관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렴변별타당도와 준거타당도도 매우 낮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K-OBCS의 감시성과 수치심 척도는 사회적 신체표준의 내면화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충분한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가진 척도로 결론지었고, 신체통제신념은 일종의 효능감으로서 향후 신체이미지 연구에 유용한 개념임을 논의하였다. 객체화 신체의식의 성별차이를 검토하였고, 연구결과와 시사점과 후속 연구의 주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신체이미지, 객체화 신체의식,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신체통제신념, 척도개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여성주의 이론가들은 여성의 신체경험과 그것이 여성의 신체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틀로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의 이론들을 내놓았다. 이 이론들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신체 경험은 주로 여성 신체의 객체화 때문이다. 신

체의 객체화란 신체를 자기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다루는 전인격적 주체의 일부로 보지 않고, 관찰하고 이용할 객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여성신체의 객체화에는 부모나 친구들의 영향도 있지만 주로 자본주의 대중매체들의 영향이 크다. 이들 매체들은 여성의 신체

를 제 삼자의 시선에서 관찰대상이나 이용대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의 신체를 객체화하게 되는 성적 객체화(sexual objectification)를 경험하게 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그 결과로 여성의 신체는 ‘관찰대상인 무엇’으로 구성되며(Spitzack, 1990), 이런 구성의 결과로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제 삼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듯 보는 것을 학습하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문화적 신체표준을 자기 신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내면화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게 되며, 그 결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McKinley & Hyde, 1996). Fredrickson과 Roberts(1997)의 객체화이론에 따르면, 이런 부정적 경험에는 수치심과 불안, 몰입(flow) 경험의 감소, 신체 내적 감각에 대한 민감성 저하 등 뿐 아니라, 섭식장애와 우울증, 성기능 장애 등 부정적 장애들이 포함된다.

McKinley와 Hyde(1996)는 여성들이 과도하게 마른, 그래서 도달 불가능한 문화적 신체표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를 마치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런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는 현상을 객체화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이라 칭하였는데, 이런 의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신체경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들은 Bartky(1988), Spitzack(1990) 등의 이론을 토대로 객체화 신체의식의 하위요인으로 신체에 대한 감시성, 문화적 신체표준의 내면화에 따른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 신체에 대한 통제감의 셋을 들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OBC Scale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여대생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서, 각 하위요인별로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체이미지 연구분야에서 비교적 널리 이

용되며(예를 들어, Forbes, Jobe, & Revak, 2006; Noll & Fredrickson, 1998; Tiggemann, 2001 등), 최근 국내에서도 OBCS 문항을 번안해서 일부 이용하고 있으나(예를 들어, 박은아, 2003; 손은정, 2007 등) 아직 국내표본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지는 않았다. McKinley(1998)에 의해 남성용이 개발되었고, 최근 아동용도 개발되었다(Lindberg, Hyde, & McKinley, 2006).

본 연구의 주목적은 미국에서 영문으로 개발된 OBC 척도를 토대로 한국판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때, 남성용 척도의 문항과 요인구조가 여성용 척도와 동일하다는 연구결과(McKinley, 1998)를 토대로 양성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신체경험의 성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바(Cash, Winstead, & Janda, 1986; Garner, 1997, 2002; Mintz, & Betz, 1986; Stiegel-Moore, & Franko, 2002), 이를 기반으로 객체화 신체의식의 성차를 탐색하고자 한다.

신체감시성

신체감시성(body surveillance)은 자신을 객체화하여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신체를 마치 감시하듯 바라보는 것으로 신체는 ‘자기애’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이다. 자신의 신체를 문화적 기준에 맞추려 하고, 신체에 대해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성은 자신과 자기 신체의 관계를 마치 ‘외부관찰자’와 ‘객체’처럼 형성하고, 이 같은 신체 감시성을 자기사랑, 건강, 개인적인 성취와 관련을 짓는다(Spitzack, 1990).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을 분리된 객체로서 관찰하고 감시해온 여성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감시한다. 또한

사회가 전달하는 이상적인 신체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기준과 불일치하는 것을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가 개인에게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우울이나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경험을 하게 된다(Carver & Scheier, 1981).

신체수치심

문화적 신체기준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신체를 비교하도록 만든다. 문화적 신체기준을 내면화하게 되면 여성은 이 기준이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기준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 끊임없이 자기 신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은 자기 신체에 대해 수치심(body shame)을 경험하게 된다(Bartky, 1988). 신체에 대한 수치심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를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신체가 사회적 기준과 동일하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수치심의 결과로 자신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 지각하며 스스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신체 객체화를 통해 느끼는 수치감은 신체에 대한 특정 감정이 아닌 자아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자신의 외모를 둘러싼 좌절감과 관련이 있다(McKinley & Hyde, 1996). 즉 여성들은 매스 미디어에 등장하는 이상적 아름다움을 내면화하는데 이러한 신체이미지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결과 정상체중의 여성들조차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수치심을 느끼며

체중감소를 위해 노력한다(Rodin, Silberstein, Striegel-Moore, 1985).

통제신념

신체에 대한 통제신념(control belief)은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한다. 즉, 내가 얼마나 내 외모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신에게 내면화된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이다. 객체화된 신체 의식은 여성이 노력하면 문화적 기준에 맞게 외모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여성들이 자기 외모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유능감을 느끼도록 하는 중요한 원천으로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때 자기존중감과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Taylor, 1989). 사회문화적인 미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통제를 하고자 한다(McKinley & Hyde, 1996). McKinley 등(1996)은 매스미디어는 사회문화적인 미의 기준을 여성들에게 전달하고 내면화시킬 뿐 아니라 그러한 미를 여성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만들고, 자신의 신체를 이상화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책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신체 통제감은 외모에 대한 문화적 기준이 달성하기 어려운 것일 때 특히 중요하다. 여성이 자기 외모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신체 감시성이나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수반되는 수치심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McKinley 등(1996)에 따르면 신체감시성과 수치심은 신체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신체통제감은 신체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자신을 관찰자의 눈으로 객체화하여 인식하고 사회문화적 기준으로 자신을 비교할수록 자기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자기 노력을 체중을 감소시키고 외모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여성일수록 신체존중감이 높고 섭식절제(restricted eating)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신체관리행동 의도에는 신체통제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은아, 2003).

연구 1

연구1에서는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의 구성개념을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관련변인과의 관련성과 외모관리 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의 타당도를 일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수도권의 ○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19세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rea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 K-OBCS). OBCS

의 24문항을 현재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3인의 도움을 받아서 직역을 하기보다는 영어 문항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장 잘 내포하도록 의역을 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3-4개의 한국어 번안 문항을 만들었다. 그 후 영어권 국가에서 3-5년 이상 거주한 한국사람 4인에게 3-4개의 한국어 번안 문항 중에서 영어문항과 그 의미가 가장 일치하는 문항을 선정하도록 하여, 일치도가 높은 문항을 선정하였다.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 각각 8문항으로 총 24문항을 6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척도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 Heinberg, Thompson과 Stomer(1995)가 개발한 SATAQ는 신체적 외모에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 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미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 SATAQ-I)” 척도와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식(Awareness: SATAQ-A)”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는 5점짜리 14문항의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타당화 연구(조선명, 1999)에서 사용된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내면화 6문항은 .853, 인식 4문항은 .646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의도. 김완석과 차주화(2006), 김완석과 유연재(2007) 등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22개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고, 이를 요인분석하여 ‘꾸밈행동’과 ‘변형행동’으로 구분하였다. ‘꾸밈행동’은 체중전문관리, 체형전문관리, 운동다이어트, 식이조절다이어트, 장신구, 헤어관리, 치아미백, 얼굴경락, 네일아트, 점 제거수술, 피부관리, 서클렌즈 등 12 문항이었고 ‘변형행동’은 입술성형, 안면윤곽수술, 코성형수술, 가

슴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입, 키수술, 시력교정 수술, 약먹기, 피어싱 등 10문항이었다. 꾸밈행동 12문항의 내적신뢰도는 .83이었고, 변형행동 10문항의 내적신뢰도는 .84였다.

표 1. K-OBCS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신뢰도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b^2	문항-전체 상관	Cronbach's α
신체감시성(K-OBC-Surveillance)						
1 나는 내 겉모습을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r)	.818			.672	.654	0.83
2 나는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r)	.781			.621	.621	
3 나는 내 외모보다 신체상태(느낌)를 더 많이 생각한다.(r)	.670			.483	.509	
4 나는 내 겉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교하지 않는다.(r)	.711			.517	.616	
5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한다.	.377			.296	.422	
6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지 자주 신경쓴다.	.486	.342		.429	.530	
7 나는 내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r)	.696			.541	.649	
8 내 몸이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r)	.580			.387	.458	
신체수치심(K-OBC-Shame)						
9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591			.393	.492	0.78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겉모습(외모)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진다.	.735			.616	.602	
11 외모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728			.577	.600	
12 사람들이 나의 실제 몸무게를 알게 되면 창피할 것 같다.	.610			.410	.473	
13 내가 해야하는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	.461			.222	.264	
14 나는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650			.441	.458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b ²	문항-전 체 상관	Cronbach' sa
신체수치심(K-OBC-Shame)						
15 내 몸무게를 조절할 수 없더라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r)		.508		.299	.459	
16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신체사이즈가 아닐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503		.384	.481	
통제신념(K-OBC-Control Belief)						
17 나는 사람들의 외모는 타고난 것이어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r)			.474	.263	.316	0.73
18 대부분의 좋은 외모 특성들은 타고나는 것이다.(r)			.337	.210	.225	
19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예뻐 / 멋있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655	.440	.465	
20 나는 내 외모에 거의 통제력이 없다고 생각한다.(r)			.573	.362	.429	
21 나는 사람들의 몸무게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r)			.546	.334	.443	
22 내가 아무리 몸무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더라도 내 몸무게는 항상 비슷할 것이다. (r)			.712	.515	.588	
23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원하는 몸무게가 될 수 있다.			.619	.399	.421	
24 체형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이다.(r)			.642	.418	.498	
eigenvalue	4.943	3.153	2.132			
설명변량(%)	20.597	13.137	8.885			

주. (r)은 역산 문항

결과 및 논의

탐색적 요인분석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OBCS가 한국의 여대생에서도 동일한 요인구조와 문항으로 구성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KMO는 .734, 구형성 검증결과 $\chi^2=998.415$, $p<.000$ 로 나타나 요인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aiser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7요인 구조로 나타났으나, scree test에서는 3개 요인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래 척도가 3요인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하여 주성분 분석법과 varimax 회전법으로 요인분석 하였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문항 6 번만이 수치심 요인에도 .3 이상의 부하량을 보일 뿐, 모든 문항들이 해당 요인들에만 .3 이상의 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총점 상관을 살펴보면, 수치심의 13번 문항과 통제신념의 18번 문항이 .3이하의 낮은 상관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해당 요인들의 문항총점과 충분히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감시성척도가 .83, 수치심척도가 .78로 만족

할 만한 수준이지만, 통제신념 척도는 .73 정도로 다소 낮았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객체화 신체외식은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수용하여, 도달 불가능한 문화적 신체 표준과 신체통제의 가능성을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신체를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객체화 신체외식은 사회문화적인 이상적 신체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한 정도를 측정하는 SATAQ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객체화 신체외식은 단순히 내면화 정도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적 행위(감시성)와 정서(수치심), 그리고 신념(통제신념)을 포착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신체기준의 내면화에 대한 측정치와는 중간정도의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 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SATAQ의 두 하위요인인 내면화(Internalization: SATAQ-I)와 인식(Awareness: SATAQ-A)이 K-OBCS의 하위요인들과 어느 정도 높은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표 2는 K-OBCS의 각 하위요인과 SATAQ의 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신체감시성은 SATAQ의 내면화($r=.427$)와 인식($r=.383$) 요인과 정적인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신체수치심 또한 내면화($r=.437$)와 인식($r=.323$) 요인과 정적인 유의한 상관이 있어서 예상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통제신념은 SATAQ의 하위요인들과 아무런 유의한 상관이 없었는데 이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

한편, K-OBCS의 하위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감시성과 수치심은 .39의 유의한 상

관이 있지만, 통제신념은 이들 두 하위요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K-OBCS 하위요인과 SATAQ 하위 요인간의 상관(n=121)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신념	내면화
신체 수치심	.387***	1		
통제신념	.104	-.118	1	
내면화 (SATAQ-I)	.427***	.437***	-.027	1
인식 (SATAQ-A)	.383***	.323***	-.150	.477***

*** $p < .001$, ** $p < .01$, * $p < .05$

준거관련 타당도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 시킨 사람은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가져야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적, 재정적 자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미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외모 관리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Harrison & Cantor, 1997; Kretchmar, 2001). 따라서 객체화된 신체외식의 하위요인들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외모관리행동 의도를 꾸밈행동의도와 변형행동 의도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외모관리행동 의도($F=4.523$, $p<.01$, $R^2=.105$)에 대해서는 신체수치심($\beta=.251$)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꾸밈행동 의도($F=7.006$, $p<.000$, $R^2=.153$)에는 신체감시성($\beta=.229$)과 신체수치심($\beta=.241$)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

형행동 의도는 회귀모델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F=1.834, p=.145, R^2=.045$), 영향정도를 검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회귀분석 결과 외모 관리행동 의도 중 꾸밈행동 의도에는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꾸밈행동의 주요 동기에는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3. 외모관리행동 의도에 대한 K-OBCS 회귀 분석결과(표준화된 회귀계수)

독립변인 \ 종속변인	행동의도 전체	꾸밈행동 의도	변형행동 의도
신체 감시성	.129	.229**	.025
신체 수치심	.251**	.241**	.208*
통제 신념	-.006	.012	-.017

주. 변형행동의도의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지 않음

*** $p < .001$, ** $p < .01$, * $p < .05$

통제신념이 감시성이나 수치심과 유의한 상관 을 나타내지 않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예상했던 것처럼, 감시성과 수치심 척 도는 SATAQ의 내면화 척도나 의식척도와 .3 - .4 수준의 적절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통제신념척도는 전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외 모관리행동의 의도에 대한 예언력에서도 비슷 하게 나타났는데, 감시성과 수치심은 외모관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예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통제신념은 전혀 준거 예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통제신념 척도가 OBCS의 하위 요인으로서 신체 감시성이나 수치심과는 달리 신체나 외모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객체화 신체의식의 하위차원으로는 다소 부적절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2

논의

한국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의 요인구조는 미국판과 거의 동일 하였고, 각 하위척도들의 신뢰도도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계수 에서 감시성과 수치심은 .39의 적절한 유의한 상관 이 있는데 반해, 통제신념은 감시성이나 수치심 척도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통제신념이 감시성과 수치심과 낮지만 유의한 상관($r=.30, r=.23, p < .05$ 각 각)이 있었던, OBCS를 개발한 Mckinley 등(1996) 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표준화 된 척도는 아니었지만 한국의 여대생을 대상으 로 OBCS를 적용했던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

연구2는 남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본을 대 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최근 들어 그 정도는 다르지만 여성뿐 만 아니라 남성들도 자신의 신체외모를 객체화 하는 경향이 있고(Morry & Staska, 2001; Murnen, 2003), OBCS가 남성표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McKinley, 1998). 따 라서 연구 1에서 나타난 요인구조를 재검토 하 고,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하게 객체화 신체의 식 척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1에서 발견한 통제신념척도의 특성들이 한정된 표본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재검토하 고자 했다. 이를 위해 SATAQ 외에 기존의 선행연구 들에서 OBCS의 하위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추가하여 K-OBCS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셋째, 연구 1에서 외모관리행동을 요인별로 범주화하여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면서 주로 외모의 향상을 위한 꾸밈행동과 변형행동을 준거로 측정된 것과 달리, 거기에 운동이나 건강보조식품 섭취와 같은 주로 건강의 향상을 위한 신체관리 행동을 추가하였다. 이는 객체화 신체의식이 주로 자신의 외모를 객체화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어서 신체의 기능(즉 건강)보다는 주로 외모에 대한 지각과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K-OBCS가 외모의 향상을 위한 행동과 건강의 향상을 위한 행동에 변별적인 예언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2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06명(남: 148, 여: 158)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연구1에서 확인한 24문항 6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체감시성 8문항, 신체수치심 8문항, 통제신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평가소재 척도(Body Value Inventory-Losuc of Evaluation: BVI-LOE). 신체평가소재란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평가와 감정이 자신의 내적 가치관을 토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외부적 관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신체감시성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반면 신체수치감이나 통제소재와는 별 상관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완석과 차주화(2006)의 신체평가소재 척도(BVI-LO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26으로 나타났다.

표 4. 파실링을 이용한 표본별 요인모형의 적합도

표본	모형	χ^2	df	GFI	AGFI	CFI	TLI	RMSEA
전체	상관있는 3요인	126.336***	51	.933	.898	.924	.902	.070
	상관없는 3요인	130.501***	53	.931	.898	.922	.903	.069
	2요인	50.921***	19	.960	.924	.961	.943	.074
	상관있는 3요인	94.661*	51	.908	.859	.907	.879	.076
남성	상관없는 3요인	95.727*	53	.905	.860	.909	.886	.074
	2요인	33.395*	19	.949	.904	.962	.943	.072
여성	상관있는 3요인	71.665*	51	.930	.892	.958	.945	.051
	상관없는 3요인	74.097*	53	.928	.895	.957	.946	.050
	2요인	29.532	19	.955	.915	.974	.962	.059

*** $p < .001$, ** $p < .01$, * $p < .05$

공적자기의식 척도. 공적자기의식은 자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때 외부에 보여지는 나,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서 신체평가소재와 마찬가지로 신체감시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지만 신체수치심이나 통제신념과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einigkeit, Scheier와 Buss(1975)의 척도를 토대로 이주일(1988)이 변안하고 타당화한 자기의식 척도 중 공적자기의식에 속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06으로 나타났다.

신체존중감 척도. 신체존중감은 객체화 신체 의식과 관련이 있어서, 객체화 신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cKenley & Hyde, 1996; Mckinley, 1999).

따라서 한국판으로 제작하여 한국의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도 객체화 신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존중감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신체존중감은 김완석(200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 KOB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신체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건강존중감의 세 하위척도를 가지고 있는 리커트 방식의 4점짜리 1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외모존중감 6문항은 .825, 체중존중감 3문항은 .822, 건강존중감 9문항은 .896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표본별 요인모형별 적합도

		χ^2	df	CFI	TLI	RMSEA
전체	상관없는 3요인(24문항)	803.011***	249	.727	.671	.085
	상관없는 3요인(24문항)	810.770***	251	.724	.670	.086
	2요인(16문항)	459.664***	103	.784	.715	.107
남성	상관없는 3요인(24문항)	518.283***	249	.716	.685	.086
	상관없는 3요인(24문항)	519.177***	251	.717	.689	.085
	2요인(16문항)	252.780***	103	.798	.764	.099
여성	상관없는 3요인(24문항)	549.989***	249	.717	.659	.088
	상관없는 3요인(24문항)	550.599***	251	.717	.662	.087
	2요인(16문항)	312.347***	103	.761	.685	.114

*** $p < .001$, ** $p < .01$, * $p < .05$

자기존중감 척도. 신체존중감은 자기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기존중감은 K-OBCS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척도를 전병제(1974)가 한국 타당화한 자기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리커트 방식의 4점짜리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30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 Diener, Emmons, Larsen 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에 대한 만족도 척도를 김완석과 김영진(1997)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5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55로 나타났다.

신체관리행동 의도와 경험. 준거타당화를 위해 체중이나 외모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와 약물섭취, 성형수술, 그리고 건강을 위한 운동과 건강보조식품 섭취의 경험유무와 의도를 있다/없다의 양분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확인적 요인분석

Mckinley 등(1996)은 OBCS를 개발하면서, 측정변인들이 많은 경우에 측정변인간의 우연(chance) 공변인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무선적 또는 체계적 측정오차가 증가되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할 때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을 문항집단화(parceling)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런 분석법을 따라 각 문항들을 무선적으로 문항집단을 구성하여 전체표본과, 남성, 여성표본 각각에서 (가) 통제신념과 두 하위요인들이 상관을 가정한 3요인 모형, (나) 통제신념과 두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0인로 가정한 3요인 모형 (대) 통제신념이 없는 2요인 모형을 비교하였다. 표4는 표본에 따른 각 요인모형의 적합도이다. 분석결과, 남녀 표본 모두에서 상관을 가정한 3요인이나, 상관을 가정하지 않은 3요인보다는 통제신념이 없는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Mckinley 등(1996)이 이용한 문항집단화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구조의 검증, 요인의 수 그리고 요인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을 검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문항집단화를 하지 않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남녀 표본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모형적합도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문항집단화를 이용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3요인 모형보다는 통제신념을 제거한 2요인 모형이 약간 높은 모형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통제신념을 배제한 2요인 모형이 K-OBCS의 구조모형으로서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객체화 신체의식을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으로 이루어진 2요인 구조로 간주하는 것이 통제신념을 포함한 3요인 구조로 간주하는 것에 비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뢰도

K-OBCS의 하위척도들의 신뢰도를 Cronbach's α 로 계산한 결과 신체감시성은 여성표본이 .853, 남성표본이 .854였고, 신체수치심은 여성표본에서 .791, 남성표본에서 .752로 나타나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통제신념은 여성표본에서 .594, 남성표본에서 .606에 불과해서 연구1에서 .727의 신뢰도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았다.

객체화 신체의식의 성별차이

Robert와 Gettman(2004)은 문장 재배열 과제를 통해 객체화를 활성화시키는 연구를 통해 여성은 객체화와 관련된 단서에 의해 자기 객체화가 활성화되는 반면 남성은 잘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relan과 Hargreaves(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객체화정도가 높았으며, 자기와 다른 사람을 객체화하는 정도에서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 객체화 정도에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객체화수준이 더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객체화 신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감시성은 여성(M=32.46, SD=6.58)이 남성(M=29.08, SD=6.8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t=-4.39, p < .001$, 신체수치심에서도 여성(M=27.38, SD=6.87)이 남성(M=25.21, SD=6.4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t=-2.84, p < .01$. 마찬가지로 여성(M=33.69, SD=4.70)은 남성(M=32.54, SD=5.13)에 비해 통제신념도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2.05, p < .05$.

수렴 및 변별 타당도

표 6은 K-OBCS의 하위요인들과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평가소재와 공적 자기의식은 모두 자신을 자신의 내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기보다는 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성향을 측정한다는 면에서 수치심이나 통제신념에 비하면 신체감시성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남녀 표본 모두에서 신체감시성은 평가소재와 공적자기의식 모두 .6을 넘는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신체수치심은 평가소재나 공적자기의식과 여성의 경우는 .27과 .29 정도의, 남성의 경우는 .35와 .36 정도의 유의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통제신념은 여성이나 남성표본 모두에서 신체 평가소재나 공적자기의식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표 6. 성별 K-OBCS 하위요인과 관련변인 간의 상관계수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신념	평가소재	공적 자기의식	Cronbach's α		
						전체	남	여
신체감시성	1	.212***	.117	.693***	.692***	.862	.854	.853
신체수치심	.371***	1	-.063	.270***	.292***	.770	.752	.791
통제신념	.087	-.005	1	-.027	-.011	.602	.606	.594
평가소재	.666***	.347***	-.007	1	.561***			
공적자기의식	.613***	.361***	.050	.428***	1			

주. 대각선의 위쪽은 여성(n=157), 아래쪽은 남성(n=146)

*** $p < .001$, ** $p < .01$, * $p < .05$

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

객체화 신체이식이 신체존중감,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신체감시성은 남성표본에서는 신체존중감 총

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표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위존중감별로 보면, 남성표본에서 신체감시성은 외모존중감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수치심은 남녀표본 모두에서 신체존중감 총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존중감별로 보면, 남성의 신체수치심은

체중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신체수치심은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통제신념은 남성표본에서만 체중존중감과 건강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여성표본에서는 신체존중감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표 7. 존중감과 안녕감에 대한 K-OBCS 하위요인들의 회귀분석결과(표준화된 회귀계수)

표본별	종속변인 독립변인	신체존중감 총점	외모 존중감	체중 존중감	건강 존중감	자기 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남성	신체감시성	-.203*	-.215*	-.128	-.135	-.079	-.174*
	신체수치심	-.253**	-.093	-.352***	-.091	-.148	.117
	통제신념	.190*	.039	.165*	.220**	.264***	-.110
여성	신체감시성	.076	-.033	.095	.081	-.005	-.183*
	신체수치심	-.465***	-.290***	-.613***	.013	-.214**	-.246**
	통제신념	.075	.132	.047	.004	.192*	.119

*** $p < .001$, ** $p < .01$, * $p < .05$

표8. 신체관련행동 경험과 의도 여부에 따른 K-OBCS의 성별 평균(표준편차)

행동별	남성표본			여성표본		
	있다($n=39$)	없다($n=109$)	t -value	있다($n=83$)	없다($n=74$)	t -value
다이어트경험	있다($n=39$)	없다($n=109$)	t -value	있다($n=83$)	없다($n=74$)	t -value
신체감시성	30.2(7.1)	28.7(6.8)	1.221	33.2(6.7)	31.6(6.4)	1.510
신체수치심	26.8(6.8)	24.6(6.2)	1.859	29.7(6.7)	24.7(6.1)	4.869***
통제신념	33.5(5.1)	32.2(5.1)	1.384	33.8(4.7)	33.6(4.7)	0.272
다이어트의도	있다($n=65$)	없다($n=80$)	t -value	있다($n=124$)	없다($n=33$)	t -value
신체감시성	29.7(7.4)	28.6(6.5)	0.986	32.7(6.6)	31.5(6.5)	0.896
신체수치심	26.6(7.2)	24.0(5.7)	2.418**	28.5(6.5)	23.0(6.3)	4.380***
통제신념	33.8(4.7)	31.5(5.3)	2.810***	33.5(4.8)	34.5(4.2)	-1.094
약물섭취경험	있다($n=10$)	없다($n=138$)	t -value	있다($n=13$)	없다($n=144$)	t -value
신체감시성	33.6(8.6)	28.8(6.6)	2.183*	33.3(7.9)	32.4(6.5)	0.484
신체수치심	32.0(7.7)	24.7(6.1)	3.591***	33.9(7.7)	26.8(6.5)	3.729***
통제신념	31.8(7.9)	32.6(4.9)	-0.472	31.2(4.7)	33.9(4.7)	-1.989*
약물섭취의도	있다($n=8$)	없다($n=138$)	t -value	있다($n=18$)	없다($n=139$)	t -value
신체감시성	33.4(8.3)	28.8(6.7)	1.825	36.0(6.2)	32.0(6.5)	2.464*
신체수치심	32.1(8.6)	24.8(6.1)	3.200**	30.1(7)	27.0(6.8)	1.821
통제신념	32.5(6.4)	32.5(5.1)	-0.004	31.8(5.4)	33.9(4.6)	-1.842
성형수술경험	있다($n=2$)	없다($n=143$)	t -value	있다($n=14$)	없다($n=141$)	t -value
신체감시성	24.0(5.7)	29.2(6.9)	-1.058	35.9(6.4)	32.1(6.5)	2.059*
신체수치심	21.0(2.8)	25.3(6.5)	-0.929	30.1(8.4)	27.1(6.6)	1.634
통제신념	41.0(8.5)	32.3(4.9)	2.460*	36.7(4.6)	33.4(4.6)	2.599*

행동별	남성표본			여성표본		
근육운동경험	있다(<i>n</i> =93)	없다(<i>n</i> =55)	<i>t</i> -value	있다(<i>n</i> =39)	없다(<i>n</i> =118)	<i>t</i> -value
신체감시성	29.0(6.5)	29.3(7.5)	-0.285	31.9(6.7)	32.6(6.6)	-0.557
신체수치심	25.3(6.7)	25.1(6.1)	0.155	29.2(6.7)	26.8(6.9)	1.929
통제신념	32.8(4.7)	32.2(5.9)	0.653	33.4(3.9)	33.8(4.9)	-0.388
근육운동의도	있다(<i>n</i> =114)	없다(<i>n</i> =31)	<i>t</i> -value	있다(<i>n</i> =59)	없다(<i>n</i> =98)	<i>t</i> -value
신체감시성	29.3(6.9)	28.3(7)	0.733	32.5(6.3)	32.4(6.8)	0.098
신체수치심	25.2(6.6)	25.2(6)	0.000	28.7(6.5)	26.6(7)	1.823
통제신념	32.8(5)	31.3(5.7)	1.451	33.7(4.4)	33.7(4.9)	0.010
건강보조식품섭취경험	있다(<i>n</i> =47)	없다(<i>n</i> =101)	<i>t</i> -value	있다(<i>n</i> =62)	없다(<i>n</i> =95)	<i>t</i> -value
신체감시성	29.4(6.9)	28.9(6.9)	0.441	32.4(6.6)	32.5(6.6)	-0.110
신체수치심	24.0(6.9)	25.8(6.2)	-1.521	27.7(7.5)	27.2(6.4)	0.474
통제신념	33.1(5.8)	32.3(4.8)	0.915	33.2(5.2)	34.0(4.3)	-1.054
건강보조식품섭취의도	있다(<i>n</i> =63)	없다(<i>n</i> =83)	<i>t</i> -value	있다(<i>n</i> =71)	없다(<i>n</i> =85)	<i>t</i> -value
신체감시성	30.1(7)	28.3(6.7)	1.582	32.9(6.8)	32.1(6.5)	0.746
신체수치심	25.4(7.3)	25.1(5.8)	0.281	27.9(8.1)	27.0(5.7)	0.829
통제신념	32.3(5.5)	32.7(4.9)	-0.469	33.5(5.1)	33.8(4.4)	-0.405

*** *p* < .001, ** *p* < .01, * *p* < .05

한편, 신체존중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에서 신체감시성보다 오히려 신체수치심이 더 영향력이 큰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McKinley 등(1996),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통제신념이 여성표본에서는 McKinley 등(1996)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신체존중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반면, 남성표본에서는 체중과 건강존중감에 작지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주관적 안녕감은 남녀표본 모두에서 신체감시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하지만 신체수치심과는 여성표본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통제신념과는 남녀표본 모두에서 아무런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관리 행동경험과 의도에 대한 예언력

표 8은 신체관리 행동유형별 경험과 의도에 부여 따른 K-OBCS 하위 척도들의 성별 평균과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각 행동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 경험이나 계획이 있는 여성들은 없는 여성들보다 신체수치심이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는 다이어트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수치심이 높고, 통제신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섭취행동의 경우,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없는 남성들에 비해 신체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경험이 있는 여성은 없는 경우에 비해 신체수치심이 높고, 통제신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섭

취계획이 있는 남성들은 없는 남성들에 비해 신체수치심이 높고, 계획이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신체감시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성형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신체감시성과 통제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근육운동의 경험과 의도, 건강보조식품의 경험과 의도 여부에 따른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의 차이는 남성이나 여성 표본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논의

본 연구는 여성들이 사회문화적인 이상적인 미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하여 타인의 눈으로 감시하고,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도달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수치감과 자신의 신체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McKinley 등(1996)이 만든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를 한국 표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하려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객체화 신체 의식의 원척도와 달리, 한국 표본에서는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의 두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신체통제신념을 포함하는 세 차원 척도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판 척도의 요인구조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3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cKinley 등(1996)이 사용했던 parceling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여성표본과 남성표본 모두에서 하위요인간의 상관관을 가정한 3요인 모형이나 가정하지 않은 3요인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

제신념을 제외한 2요인 모형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항들을 parceling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삼요인 모형이 남녀 표본 모두에서 그리 만족할 만하지 않으며, 오히려 통제신념을 제외한 이요인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 하위척도는 연구1과 연구2 모두에서 남녀 모두에서 .75 이상의 내적 합치도를 보여주었으며, 신체평가소재나 공격 자기의식, 신체존중감,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등과 의미있는 수렴변별 타당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섭식조절이나 약물사용, 성형수술과 같은 신체관리 행동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반면, 건강식품 소비나 근력강화 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준거타당도도 받아들일만한 것이었다. 또한 이같은 감시성과 수치심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은 여성표본과 남성표본 모두에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둘 두 하위척도의 한국판은 향후연구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도구로서 필요한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제신념은 McKinley 등(1996)의 원척도 개발연구에서 신체감시성이나 신체수치심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연구1과 연구2의 여성표본과 남성표본 모두에서 신체감시성이나 신체수치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또한 통제신념은 SATAQ의 두 하위요인인 내면화(SATAQ-I)나 인식(SATAQ-A)척도와 상관이 없었고(연구1), 신체평가소재(BVI-LOE)나 공격 자기의식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여성의 신체존중감이나 주관적 안녕감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연구 2).

이러한 결과는 한국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박은아, 2003)와 동일한 것이다. 박은

아(2003)는 미국과 한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OBCS와 자기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비교한 바 있는데, 통제신념은 수치심 하고만 -.17의 유의하지만 매우 낮은 상관이 있었을 뿐 그 외의 어떤 척도들과도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박은아(2003)의 연구결과 외에도, OBCS를 이용한 많은 외국 연구의 결과들도 통제신념이 내적 합치도가 매우 낮고, 감시성이나 수치심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론적으로 관계가 있는 다른 개념들과도 상관이 없거나 매우 낮았다는 점은 이 척도가 객체화 신체의식의 하위척도로 타당하기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다.

예컨대, McKinley 등(1996)의 OBCS 개발연구를 살펴보면, 감시성과 수치심은 상호상관이 .66이고 신체존중감과도 -.39와 -.51의 유의한 높은 상관을 보인데 비해, 통제신념은 감시성과는 .30의, 수치심과는 .23의 낮은 상관을 보였고, 신체존중감과는 상관이 없었다(연구1). 또한, 통제신념은 AAQ(반비만태도척도)와도 상관이 없었고 다만 EAT-26과 .31, Dietry척도와 .24, 거식척도와 .30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이들 상관은 감시성과 수치심에 비하면 일관성 있게 낮았다(연구2).

남성용 척도를 개발한 McKinley(1998)의 연구에서는 통제신념의 내적합치도가 .64에 불과했고 남녀표본 모두에서 감시성이나 수치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며, 이상적 체중과 실제체중의 차이와도 상관이 없었다. 또한 통제신념의 평균값의 성차도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용을 개발하기 위한 Lindberg, Hyde와 McKinley(2006)의 연구에서도 통제신념은 내적합치도 계수가 .44와 .56에 불과해서 결국 사용

하지 못했다. 또한, McKinley(2006)의 종단연구에서는 통제신념은 측정시점과 성별에 따른 네 개의 표본에서 감시성과는 모두 상관이 없었고, 수치심과는 한 표본에서만 -.26의 유의하지만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다.

최근 Forbes, Jobe와 Revak(2006)은 통제신념은 SATAQ-3 하위차원 어느 것보다도 유의한 상관이 없음을 보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OBCS의 감시성과 수치심 척도가 신체의 크기와 체중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포괄범위가 좁은 척도 같다(299쪽)”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또한 OBCS 하위 척도들의 문항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이 내면화를 반영하는 것임에 비해, 통제신념은 내면화와 관계없는 일종의 효능감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원개발자인 McKinley 등(1996)도 “외모통제는 여성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역능감을 주는 일종의 기술(185쪽)”이며, 통제감은 심리적 신체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또한, “통제신념은 외모통제 행동의 주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94쪽)”고 기술함으로써 통제신념이 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동기적 역능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제신념은 대중매체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여성자신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타인을 관점을 내면화한 상태,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하는 상태로 간주하기 보다는 이와 무관한 개인의 신념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력 지각을 반영하는 또 다른 구성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OBCS는 총점을 계산하지 않고 각 하위척도의 점수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세 개의 하위 구성개념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수렴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내면화수준의 지표로는 감시성과 수치심만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식일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에서는 OBCS에서 통제신념을 빼고 사용하기도 한다(예를 들면, Noll & Fredrickson, 1998; Tiggemann, 2001). 하지만, 신체통제신념은 개인의 신체관리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한 변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예언력을 가진 변인일 뿐 아니라 통제신념이 섭식절제행동을 잘 예측한다는 일부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McKinley & Hyde, 1996). 또한, 앞서 말했듯이 OBCS가 하위척도의 합산값을 사용하지 않고 각 하위척도를 따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안된 척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통제신념 척도를 폐기하기는 이른 것 같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개선한다면, 그 자체로 신체이미지 연구와 관련해서 매우 의미있는 개념을 포착하는 도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수치심과 신체존중감이 외모향상을 위한 행동들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향상을 위한 행동들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와, 이들이 외모와 체중존중감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존중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OBCS가 포착하는 객체화 신체 의식이 주로 신체의 기능보다는 외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실제로 외모나 체중과는 달리 건강은 타인의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객체화 신체 의식’의 대상이 신체의 내적 특성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적 특성이라는 점은 수긍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표본 뿐 아니라 남성표본에서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K-OBCS를 개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의 성차

를 보여주었다. 기존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하위요인에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객체화 신체 의식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자신의 신체를 주체적 지각과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타인의 관점에서 객체적 지각과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객체화 신체 의식의 하위 차원들이 신체경험에서 하는 역할이 다소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의 신체수치심은 신체존중감과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의 신체수치심은 자기존중감이나 주관적 안녕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개념에 뚜렷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는 젊은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집단에 따라 객체화 신체 의식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객체화 신체 의식의 구조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성차가 더 두드러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든 집단일수록 객체화 신체 의식 수준이 낮을 수 있으며, 신체의 외모뿐 아니라 신체의 기능에 대한 지각과 평가가 객체화 신체 의식에 포함될 수도 있다.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집단차이와 관련해서, 객체화 신체 의식의 문화적 차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객체화 신체 의식이 사회적 신체표준의 내면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신체의 자본화를 촉진한다는 주장(Bourdieu, 1973; Shilling, 2000 에서 재인용)을 감안하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자본주의 가치관을 많이 수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객

체화 신체의식이 낮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과 한국의 여대생을 비교했던 박은아(2001)는 한국 여대생과 미국여대생 간에 신체감시성과 수치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신체통제신념은 미국여대생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또한 신체의 의미해석은 종교적 전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김완석과 김정식, 2007), 하위종교에 따른 객체화 신체의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나 하위문화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신체경험의 문화적 차이를 통해 신체관리행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분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객체화 신체의식과 관련 변인들, 즉, 신체존중감이나 자기존중감, 신체관리행동들의 인과적 관계를 탐구하지 않았다. 객체화 신체의식은 사회문화적 신체기준의 내면화의 결과이며 신체존중감의 선행요인일 수 있지만, 거꾸로 신체존중감이 객체화 신체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체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사람들은 신체비교단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Trampe, Stapel, & Siero, 2007), 이는 신체존중감이 신체감시성이나 수치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역시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참고문헌

김완석 (2007).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231-253.

김완석, 차주화 (2006). 신체가치와 소비행동: 척도개발과 활용을 위한 탐색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7(3), 455-485.

김완석, 김영진 (1997). 주관적 안녕척도: 공동 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61-82.

김완석, 김정식 (2007). 동아시아 여대생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출판중).

김완석, 유연재 (2007). 신체가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신체조작성척도와 신체편향성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21.

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35-56.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1), 63-81.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검색척도와 자기의식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전병제 (1974). 자아 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조선명 (200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Bartky, S. L. (1988). Foucault, femininity, and the modernization of patriarchal power. In I. Diamond, & L. Quinby (Eds.),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s on resistance* (61-86).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Carver, C. S. and Scheier, M. F.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Theory Approach*

- to *Human Behavior*. Springer, New York.
- Cash, T. F., Winstead, B. A., & Janda, L. H.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up. *Psychology Today*, April, 30-37.
- Diener, E., Emmons, R.,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Forbes, G. B., Jobe, R. L., & Revak, J. A. (2006). Relationships between dissatisfaction with specific body characteristics and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3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Body Image*, 3, 295-300.
- Fredrickson, B., & Roberts, T.(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Garner, D. M. (2002). Body image and anorex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95-303). New York: Guilford.
- Harrison, K., & Cantor, J.(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exposure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Communication*, 47, 40-67.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7(1), 81-89.
- Kretchmar, J. L.(2001). *Objectified consciousness in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college-age women of varying physical activity level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Lindberg, S. M., Hyde, J. S., & McKinley, N. M. (2006). A measure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for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youth.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1, 65-76.
- McKinley, N. M. (1998). Gender differences in undergraduates' body 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ctual / ideal weight discrepancy. *Sex Roles*, 39, 113 - 123.
- McKinley, N. M. (1999). Women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Mothers'and daughters' body experience in cultural, developmental, and familial context. *Developmental Psychology*, 35, 760 - 769.
- McKinley, N. M. (2006). Longitudinal gender differences i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weight-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s: Cultural and developmental contexts in the transition from college. *Sex Roles*, 54, 159 - 173.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intz, L. B., & Betz, N. E. (1986). Sex differences in the nature, realism, and correlates of body image. *Sex Roles*, 15, 185-195.
- Morry, M. M., & Staska, S. L.(2001). Magazine exposure: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eating attitudes,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3(4), 269 - 279.
- Murnen, S. K.(2003). Thin, sexy women and strong, muscular men: grade-school children's responses to objectified images of women and men.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49(9), 427-437.
- Noll, S. M., & Fredrickson, B. L.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and Women Quarterly*, 22, 623-636.
- Roberts, T., & Gettman, J. Y. (2004). Mere Exposure: Gender Differences in the Negative Effects of Priming a State of Self-Objectification.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51(2), 17-28.
- Rodin, J., Silberstein, L., & Striegel-Moore, R.(1985). Women and Weight: A normative discontent. In T. B. Songeregger (Ed.), *Psychology and Gender*.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lling, C. (2000).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 서울:나남출판. (원본 출판년도는 1993).
- Spitzack, C. (1990). *Confessing excess: Women and the politics of body reduc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tiegel-Moore, R. H., & Franko, D. L. (2002). Body image issues among girls and women.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183-191). New York: Guilford.
- Strelan, P., & Hargreaves, D. (2005). Reasons for exercise and body esteem: men' responses to self-objectification. *Sex Roles*, 53, 495-503.
- Tiggemann. M. (2001). Person X situation interactions in body dis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0, 65-70.
- Trampe, D., Stapel, D. A., & Siero, F. W. (2007). On models and vases: Body dissatisfaction and proneness to social comparison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106-118.

1 차원고접수 : 2007. 10. 25

수정원고접수 : 2007. 11. 28

최종게재결정 : 2007. 12. 3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7, Vol. 26, No. 2, 329-349

Th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K-OBCS): Development and validation

Wan-Suk Gim, Yeon-Jae Ryu

AJOU University

Eun-A Park

DAEGU University

To develop a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McKinley and Hyde, 1996) which can be adapted to Korean college students regardless of gender, two studies were performed.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ere 431(125 female college students in study 1 and 158 female and 148 male students in study 2). The 3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K-OBCS) - surveillance, shame, and control belief - was the same as the original version. But, furth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2 factor structure of surveillance and shame was better than the 3 factor structure in which control belief was included. The level of reliability coefficients of Surveillance scale and Shame scale were acceptable, and those two scale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body-esteem,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They had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to the intentions of body-related consumptions such as diet, cosmetic surgery, and exercise as well. But, Control-Belief scale failed to show acceptable levels of reliabilities, discriminant-convergent validity,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Authors suggested that the Surveillance and Body Shame sub-scales in K-OBCS had enough psychometric qualities. Regarding the Control Belief scale, authors interpreted the concept as a kind of self-efficacy and suggested that the scale could be a useful tool for body image studies i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cale could be improve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gender differences i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Key words: body imag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urveillance, body shame, control belief, scale development, K-OBCS